

케냐서 온라인으로 석사학위 땀다 뉴노멀 석사과정 모범 사례 '주목'

한양사이버대 광고미디어MBA

송태진 학생 케냐 방송국서 근무 졸업생들 국내외 박사과정 진학도



아프리카 전문가 송태진 학생(오른쪽)과 서구원 교수. /한양사이버대

최근 가장 유행하고 있는 단어 중 하나는 온택트(Onctact)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교육 현장에서도 온택트가 자리 잡으며 전 세계 모든 대학이 이제까지는 경험하지 못한 교육 환경을 구축했다. 온택트 교육이 뉴노멀(new normal)이 되면서 사이버 수업이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 된 셈이다.

특히 온택트 교육의 선두주자이자 모범적인 교육기관으로 한양사이버대 광고미디어MBA가 주목받고 있다. 한양사이버대는 2010년 국내 사이버대 최초로 석사과정인 사이버대학원을 신설하고 광고미디어MBA 전공에서 신입생을 모집해 교육했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배출한 동문은 세계 각국에서 전문가와 경영자로 활동하며 글로벌 커뮤니티를 형성했다.

한양사이버대 광고미디어MBA 서구원 교수에 의하면, 현재 아프리카 케냐 TV 방송국 GBS 제작팀장과 YTN 해외리포터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송태진 학생이 재학 중이다.

해외에서 공연하는 아이돌 가수도 재학하고 있으며, 중국과 대만 등 해외

에서 재직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이미 석사학위를 취득한 바 있다.

송태진 PD는 아프리카 전문가로 국회 아프리카세시대포럼 특별회원, 외교부 한-아프리카재단 Af-PRO 회원, 2019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혁신가 선정, 국제개발NGO(사) 굿뉴스월드 국제개발 코디네이터, 아프리카영화학교NGO '레디고아프리카' 동아프리카 지부장 등으로 활동하며 아프리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유튜브 채널 '송태의 진짜 아프리카'를 통해 시청자와 공유하고 있다.

한양사이버대 광고미디어MBA 졸업생들은 매년 박사과정에 진학하고 있으며 석사과정에 재학 중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고 전문서적을 출판하는 등 저술 활동도 박사과정 못지않게 활발히 하고 있다.

올해는 이정민 학생이 '오프라인과 온라인 유통 매장에서의 쇼핑 행태', 광광철 학생이 '스포츠 팬 서비스 이벤트의 소비자 인식과 행동에 관한 영향', 오태규 학생이 '감염 예방 공익광고의 시각적 디자인의 효과' 등 우수한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했다.

전문서적 발간도 활발히 하고 있다. 송태진 PD는 '아프리카 좋으니까'와 '태진이의 좌충우돌 자전겨여행' 등을 발간했다. 25년의 방송국 아나운서와 쇼호스트 경험을 바탕으로 커뮤니케이션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숙 대표는 '라이브 커머스'라는 전문서적을 출판해 현재 업계의 이슈가 되고 있다.

서구원 교수는 "한양사이버대 광고미디어MBA는 국내 다른 대학과 비교하지 않고 전문지식과 학술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글로벌 스탠다드 인재를 배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매년 졸업생들은 University of Canberra와 같은 외국 대학과 한양대, 흥익대 등 국내외 유수의 대학 박사과정에 진학하고 있으며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대학에서 강의하는 졸업생도 늘고 있다.

온택트 시대의 뉴노멀 석사과정의 모범이 되는 한양사이버대 광고미디어MBA 석사과정은 오는 12월 8일까지 입학생을 모집한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따뜻한 세상 만들기' 행사가 열린 지난 13일 인하대 학생회관 광장에서 인하대 조명우 총장을 비롯한 학생, 교직원들이 김장을 하고 있다. /인하대

인하대, 이웃주민들에 김장나눔 봉사

직접 담근 김치와 연탄 등 전달

사단 규모를 줄여 진행됐다.

인하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연탄나눔과 자원봉사가 60% 이상 줄어들자 팔을 걷어붙였다.

15일 인하대에 따르면 지난 13일 조명우 총장을 비롯한 교직원 10여명, 학생 70여명 등 총 80여명은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행사에 일일 봉사자로 참여해 이웃주민들에게 직접 담근 김장김치와 연탄을 전달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한 '따뜻한 세상 만들기' 행사는 코로나19 여파로 봉

사단 규모를 줄여 진행됐다. 한진그룹이 후원하고 인하대 인하나눔봉사단(학생사회봉사단 인하랑,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서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오전부터 인하대 학생회관 광장에 천막과 테이블을 설치하고 배추김치 300kg을 담갔다.

이어 학교 인근인 미추홀구 학익동으로 이동해 김장김치와 연탄 3000장을 저소득 가정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 세대 20여 가구에 전달했다. 인하대는 앞으로도 한진그룹과 함께 지역봉사행사를 매년 이어갈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삼육대 인성교육원이 지난 2일부터 오는 12월 10일까지 6주간 교내 관사 앞 공터에서 총 18회에 걸쳐 '호프캠프'를 진행한다. /삼육대

삼육대, 캠퍼스 1박2일 '호프 캠프' 인기

내달 10일까지 6주간 진행

호프캠프는 관계중심의 캠핑 프로그램이다. 사람 간의 거리를 두는 비대면 시대에 무너져 가는 '나'와 '우리'의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행복을 되찾자는 취지다. 캠프 첫날은 일상에서 벗어나 혼자만의 만찬을 즐기는 '나 혼자 저녁식사'를 시작으로 ▲야외에서 함께 영화를 보는 '담요 시네마' ▲집단상담 전문가와 모닥불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별이 빛나는 밤에 불멍' ▲각자의 텐트로 돌아가 일기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돌아보며' 순으로 진행된다. /이현진 기자

인성교육원은 지난 2일부터 오는 12월 10일까지 6주간 교내 관사 앞 공터에서 총 18회에 걸쳐 '호프캠프'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연세대, 선배에게 진로·취업컨설팅 받는다

오늘부터 닷새간 '선배박람회' 16개 직무 종사 동문들 멘토로

연세대 미래캠퍼스 대학일자리센터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쳐있는 연세인과 지역청년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2020 연세대 Untact 선배박람회(이하 '선배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선배박람회는 기존의 고학년 대상 기업중심 박람회와는 달리 전 학년을 대상으로 열린다. 저학년 때부터 체계적인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직무 중심 진로·취업컨설팅으로 운영된다.

연세대 미래캠퍼스 대학일자리센터는 이번 선배박람회를 운영하기 위해 다양한 산업분야 선배들과의 만남을 준비했다.

▲IT개발 ▲행정직 ▲영업 ▲전략 기획 ▲금융 ▲디자인 ▲경영지원 ▲CS ▲생산관리 ▲연구개발 ▲마케팅 ▲전산직 ▲품질관리 ▲해외인재 ▲임상 파트 ▲재무회계 등 총 16개 직무에 종사하는 31명의 동문을 직무 멘토로 위촉해 해당 직무의 궁금증을 풀어갈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세종대 요리학교 SCIA

양식·한식과정 수강생 모집

세종대 미래교육원 세종컬리너리스쿨(SCIA)이 양식과정 및 한식과정 수강생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모집과정은 양식과정 '클래식에 누벨을 더한 오프 퀴진 클래스 I'와 한식과정 '뉴욕으로 간 장금이다'.

'클래식에 누벨을 더한 오프 퀴진 클래스 I'은 前 신라호텔 서양요리 총괄과 국제기능올림픽 기술위원으로 활동했던 김성국 교수가 수업을 진행한다.

이 과정은 서양요리의 기본 및 맛의 이해, 애플타이저와 소스, 메인요리 등 체계적인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으며, 클래식에 새로운 조리방법을 더하여 고품격 전문 요리를 배울 수 있는 과정이다. /이현진 기자

“코딩전문가가 직접 학교로 찾아가 교육”

서울시교육청, 찾아가는 프로 운영

서울시교육청 산하 과학전시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속 단위학교의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코딩교육 프로그램' 프로젝트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과학전시관 창의력 교실 교사들로 구성된 수업지원단이 E V3와 스마트패드 등 코딩 관련 기기를 갖고 학교를 방문해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골자다.

수업지원단 교사들이 EV3의 사용법과 센서를 활용한 로봇 작동법 등을 가르치고 수업에 필요한 장비와 프로그



찾아가는 코딩교육 프로그램 기기. /서울시교육청

램도 모두 지원한다.

과학전시관은 이달 말까지 접수를 받아 30개 학교를 선정,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방문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방문 대상 학교를 더 확대해 보다 많은 학생이 전문가로부터 코딩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현진 기자

한국외대 오늘 '전략시장 취업역량캠프'

한국외국어대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은 전략시장의 수요에 맞춰 특성화된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전략시장 취업역량캠프를 개최한다.

이번 특강에서는 특수전략시장을 ▲동유럽 ▲인도-아세안 ▲중남미 ▲중동-아프리카 ▲투르크-알타이 경제벨트 등 권역별로 나눠 각 지역 분야의 전문가들이 강연자로 나선다.

▲중남미 편: 오성주 수석연구원(포

스코경영연구원) ▲투르크-알타이 경제벨트 편: 장태승 CFO(넷마블 이스탄불 법인) ▲인도-아세안 편: 권경덕 기획평가실장(한국개발연구원) ▲중동-아프리카 편: 임주현 선임연구원(LG전자) ▲동유럽 편: 이철원 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특별 강연을 맡았다.

이번에 마련된 특강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Webex를 통해 화상으로 진행된다. /이현진 기자